

이번엔 큐어넌 넘어 '블루어넌'까지?...퍼져가는 음모론

의연한 대처에 대한 불신
바이든 지지자들 "자작극"
바이든·오바마등 암살지시
트럼프 지지자들 "배후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며 시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암살 위기에 처한 뒤 그에 대한 지지세가 결집하는 분위기다. /로이터=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중 저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이 쉽게 찾아들지 않고 있다. 연단에서 150m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 지붕에 총기를 든 남성이 기어오르는데도 막지 못한 '경호실패'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와 관련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음모론이 자라나는 배경 중 하나가 됐다.

영국 BBC 방송은 "음모론은 때때로 합당한 의문과 혼란 속에서 시작된다"면서 "(경호실패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자) 그 빈 공간으로 불신과 추측, 거짓정보가 밀려들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이번에는 좌파 진영도 음모론의 진앙으로 주목됐다. 트럼프 측이 자작극을 꾸렸다는 게 대표적 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연한 대처를 통한 강인한 모습 부각으로 지지층을 결집, 승기를 더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세에 처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QAnon)에 빚어 좌파 진영 내부의 음모론 세력을 가리키는 블루어넌(BlueAnon)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블루어넌(BlueAnon) 음모론이 흥수를 이루고 있다"고 총평했다.

실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선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격 당했다

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연출됐다'(Staged)라는 표현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표현은 음모론의 온상으로 꼽히는 트루스소셜 등 비주류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쓰이던 것이지만, 이번 사건까지 사용되는 범위를 확장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엑스 상에서 근거 없는 추측과 증오, 욕설로 채워진 게시물들이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쟁기고 있다"고 전했다.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고 단상에서 내려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을 지은 채 나누기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음모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꼽히며 회자되는 이 사진의 구도가 즉석에서 찍었다기엔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미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사진이) 너무 심하게 완벽하다"면서 "깃발은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됐다"고 적었다.

WP는 "이들은 트럼프의 귀에 묻은 피가 연극용 젤이고, 총격은 (일종의 자작극인) '가짜깃발'(false flag)이며, 비밀경호국(SS)이 트럼프 선거본부와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직후 대피를 재촉하는 경호요원들을 "기다려라"(wait)며 제지한 뒤 수차례 주먹을 치켜들며 지지자들을 격려했다. 기자의 사진이 찍힌 것도 이때였는데 음모론자들은 당사자가 고집한다고 대피를 늦추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국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소속 가짜뉴스 전문가 칼 포크는 WP에 "지난 8개월 사이 자유주의 집단들에서 더욱

모론적인 사고방식이 더 많이 표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극우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진영에서도 다른 방향의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루스소셜 이용자들은 이번 총격 사건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있거나 미 중앙정보국(CIA)가 암살을 기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캐시 파벨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추측과 거짓정보를 퍼트리려는 이들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글에는 곧장 "어떻게 정부와 법무부가 말하는 걸 믿느냐. 우린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달려 음모론 확산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총격 직전 용의자 맞닥뜨렸다"

"용의자가 총구 겨냥 경찰관 물러나자 트럼프 향한 총격 시작돼"
"경호 실패론" 더욱 커질 듯...현지 보안관도 "명백한 경호 실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저격 용의자가 총격을 시작하기 직전에 경찰관과 맞닥뜨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총격을 막지 못한 것이어서 '경호 실패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의 마이클 슬루프 보안관은 현지 경찰관이 총격이 발생한 건물 지붕에서 용의자인 토머스 매슈 크루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지 경찰들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150m(약 137m)가량 떨어진 건물 지붕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뒤 그를 검거하려 올라갔다. 하지만, 경찰관이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 양손을 짚는 순간 용의자가 방향을 틀어 총을 겨냥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을 향한 총격은

그 직후에 발생했다고 한다. 슬루프 보안관은 "나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경찰이 한손으로는 지붕을 잡고 한손으로는 총을 꺼내 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목격자 두 명도 사건 발생 전 지붕 위에 총격범이 있었다고 전했다.

목격자 중 한명은 곧장 경찰관에게 지붕 위에 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알렸지만, 자신들이 있던 곳과 해당 건물 이 너무 가까워 목인이 시야에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목격자는 "경찰에 위치를 설명하려고 할 때 총격이 시작됐다"며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정신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총격 발생 전 용의자를 발견하고도 범행을 막지 못한 데다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호 실패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격 사건 발생 후 반격하는 미 경찰들.

'국가 상징' 말레이호랑이 멸종 우려 확산

말레이시아의 국가적 상징이지만 야생에서 150마리도 남지 않은 말레이호랑이가 최근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

송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북부 클란탄주의 한 하천에서 발견된 말레이호랑이 사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이 사체에는 멧이나 총격 등에 따른 외상의 흔적은 없었으며 클란탄주 삼림 관리 당국은 부검을 통해 사인

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에는 5살 호랑이가 중부 파항주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차와 충돌해 죽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서부 페락주의 고속도로에서 4살 수컷 호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인 사체로 발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로드킬'(찾길 사고)로 숨진 호랑이만 5마리에 달한다. /연합뉴스

테러연계 우려...파리올림픽 일자리 지원자 3천명 퇴짜

프랑스 당국이 테러 연계 가능성과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28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일자리 지원자 3천500명 이상을 거부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림픽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제랄드 다르마냥 프랑

스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올림픽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십만건의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이 거부된 사람들 가운데는 프랑스 정부의 테러위험인물목록에 올라가 있는 130명과 급진 이슬람교도나 극좌,

극우와 관계가 있는 수십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28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경기 기간 내내 운동선수, 코치진, 취재진, 자원봉사자, 사설 경호원 등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민간 구역 출입을 위한 승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림픽 기간 파리 전역에는 3만~4만5천명의 보안 인력이 동원될 계획이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